

# 대학생 불교동아리 내년 신입생 모집 “지금 준비해요”

# 지난 3월 '06학번 새내기 모집' 대자보를 들고 학내 게시판 앞에 섰던 서울 세종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은 참담한 기분을 맛봤다. 벌써 기독교 동아리들이 포스터와 다양한 홍보거리들로 게시판 전체를 도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겨우 대자보 한 장을 붙일 수 있었던 회원들은 “아뵐까, 이번에도 늦었구나!”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올해도 새 회원이 적게 들어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주고받았다. 뒤돌아서면서 문득 드는 의문 하나. “그런데, 타종교 학생회는 대체 언제 저런 준비를 다 했지? 우리도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꽤 빨리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 틈 날 때마다 싸이월드에서 접속하는 일명 '싸이홀릭' 박은혜(20)양은 지난해 겨울, 인천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뒤 한가롭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문득 '인천대(06학번 모여라)'라는 이름의 싸이카페를 발견했다. 카페에 가입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미니홈피 방문록과 카페를 넘나들며 회원들과 친해진 은혜양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불교학생회에 호감을 갖게 됐고, 올해 개강하자마자 불교학생회에 등록했다. 이 카페를 개설한 인천대 학생의 불교학생회장은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의 특성을 포교와 접촉, 발 빠르게 새내기 포교에 나선 결과 올해 초 약 400여명의 새나이를 카페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내년도 대학교 새나이를 부처님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교전략은 언제부터 수립해야 할까? 정답은 '지금부터'다.

대학생 불자포교 전략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당해 3월 개강과 함께 대학불자들도 '새내기 포교전략'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포교 전략도 학내에 홍보 대자보 및 플래카드 부착하기 등의 단선적인 홍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2학기 개강과 함께 다음 해 새내기 포교전략을 짜는 것이 '대세'다. 수시모집으로 9-12월 등 하반기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전체 대학모집정원의 44.4%(2007년 대입전형 기준)에 이르는 등 입시제도가 변화하면서 생긴 새 풍속이다. 이들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준비해 3월에 신입생 홍보를 시작하면 너무 늦다”며 “새내기 불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포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나기포교기획팀' 가동  
한국대학교불교연합회(회장 신보라·이하 대불련)는 9월부터 '새나기포교기획팀'을 새롭게 가동한다. 중앙 입원진과 각 대학 불교학생회 집행부 10-15명으로 팀을 꾸려 2주에 한 번씩 '07학년도 새내기 포교 방안'을 주제로 기획회의를 갖는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동안 수시합격자 대상으로 대불련 홍보에 나서며, 전국교 대학에 배포할 '07학년도용 포스터와 리

## 새학기 시작되면 '포교전쟁'...전략 미리짜야

### 수시모집 증가로 새내기 포교도 '수시체제'

플래트를 미리 제작한다. 향후 △07학년도 신입생오리엔테이션 홍보전략 수립 △각 지회가 공유할 수 있는 성공담을 모은 '새내기 포교가이드' 발간 △11월경 '새내기 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열 계획이다.

신보라 회장은 “올해 초 06학번 회원 모집에서 한국대학교불교연합회(CCC)나 한국기독교학생회(IFV), 국제대학교불교협의회(CMI) 등에 비해 대응이 늦은 바람에 회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하반기에 새나기포교 전략을 구체화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매년 대입 신입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행하는 등 정확한 포교방안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내년엔 개강 전에 승부 끝낸다  
중앙대 불교학생회(회장 김경택)는 대전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불자 청소년들을 대학 불교학생회로 자연스럽게 흡수, 안정적인 불자를 키워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부터 파라미터 대전지부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택 회장은 “비불자를 대상으로 캠퍼스 가두모집을 펼치는 것보다, 학창 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던 불자 청소년들을 고소란히 흡수하는 일이 더 효과적이고 시급히 해야 할 문제”라며 “충청도 지역 중립교교와 파라미터 대전지부를 통해 청소년불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밀착해 가입을 유도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불교학생회(회장 김보라)는 학생회관과 캠퍼스 곳곳에 (사)풍경소리에서 만든 좋은 경우를 소개하는 게시판을 부착하고 불교를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내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공개법회'를 준비 중이다.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예전 대학생들은 운동권, 동아리 모임 등 '우리'와 '단체'가 키워드였다면 이제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특징”이라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에게 '1:1관계'를 강조한 '맞춤형 포교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대학 불교학생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성신여대 불교학생회(회장 박설아)는 2학기 수시원서를 접수하러 오는 지원자들에게 홍보를 겸한 차보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메일과 전화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 하반기 동안 '07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홍보 전략을 수립해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교학생회를 알릴 계획이다.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제1기 신입생 모집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학장 송묵)가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서울캠퍼스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지정한 '제1호 특수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포교사, 일

반 불자 등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9월 13일-2007년 2월 28일 서울 조계사 교육관에서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9시 교육이 진행된다. 입학에 원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burec.org)로 접수하거나 전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수강료는 35만 원.(02)738-7863 이은비 기자



## 정혜선원 어린이법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470여개의 교회가 골목골목 들어서 있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법회를 여는 사찰이 있다. 지난 1999년 개원한 뒤 2002년부터 어린이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정혜선원(주지 호연)이 그곳이다.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매주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법회에 참석한다.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수영 스님은 법회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을 “주지스님의 원력과 신도·학부모들의 지원, 법사 스님과 지도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가진 신도가 한 달에 한 번 종이 접기 교실을 진행하고, 화교출신 신도는 매주 '한 마디 배워보아요' 중국어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도들 중에서 지원자를 뽑아 외국어 교육, 스포츠댄스, 선무도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모회”는 어린이법회에 참석자 학부모 중심으로 결성된 자원봉사모임이다. 매주 10여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차에 태워 사찰로 데려오고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간식봉사 등을 펼



서울 정혜선원은 어린이법회를 열 공간이 따로 없지만, 대신 토요일 오후만큼은 사찰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한다. 도심에서 어린이법회를 열기 위한 포교전략이다.

## '교회 숲'서 연꽃 키우기 신바람

### 종이접기, 중국어교실, 선무도 등 '특활' 진행

라고 꼽았다.

정혜선원은 아파트촌 한가운데 위치한 상가 건물 8층에 들어서었다. 50여평의 법당 외에는 법회를 불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일요일에는 신도들을 위한 법회를 열기도 빠듯하다.

그러나 공간이 없어도 어린이포교를 포기할 수 없었던 주지 호연 스님은 어린이법회 시간을 일반법회가 없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정했다.

주지스님의 원력을 뒷받침 해주는 '신도회'와 '자모회'의 든든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법회가 열리는 토요일 오후에는 법당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기도하러 오는 불자들도 이 때 만큼은 법당에서 자리를 피해 법회를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법회 2부 수업인 특별시간에는 신도들이 직접 교사로 참여하

치며 법회를 지원한다.

무엇보다도 정혜선원은 법회 프로그램 운영방향은 물론 어린이법회에 관련된 인사문제까지 법사스님에게 일임해 최대한 자유롭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에 힘을 얻은 수영 스님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임 선아회(善兒會)를 이끌며 정혜선원 어린이법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수영 스님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법회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30분 단위로 편성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4개월 단위로 계획을 짜 매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들의 원력과 불자들의 호응으로 '무장'한 정혜선원은 언뜻처럼 환한 어린이들의 '천진미소'로 장엄된 도량이다. (02)971-4426 이은비 기자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 氣 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 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 북한보고서)

MBC-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쬐어주면 사할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계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계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특징: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모집: 종합반 - 수시접수 5명 이내  
※ 맞춤형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 H·P 011-248-1567

##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명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